

# 충주지역 도자의 역사와 문화

강경숙\*

남진주\*\*

- |                 |                |
|-----------------|----------------|
| I. 머리말          | 2. 분묘 유적 출토 도자 |
| II. 연구사와 문헌기록   | 3. 사지 유적 출토 도자 |
| 1. 연구사          | 4. 가마 유적 출토 도자 |
| 2. 문헌기록         | IV. 도자의 역사와 문화 |
| III. 도자자료       | V. 맺음말         |
| 1. 집자리 유적 출토 도자 |                |

## I. 머리말

충주는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분지로서 한강을 비롯한 큰 하천이 이 지역을 관통하여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요한 곳이다. 충주지역 북서쪽에는 구릉을 형성한 차령산맥이, 남동쪽에는 험준한 산맥으로 형성된 소백산맥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竹嶺, 鳥嶺, 梨花嶺 등은 문화 교류의 구실을 하였고 남한강 본류와 달천, 요도천, 봉황천 등의 하천은 북한강과 합류하여 경기도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수운을 발달시켰다.<sup>1)</sup> 또한 충적대지가 발달하여 일찍부터 사람이 살았고, 그 흔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이들 하천변에 발달하였다.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이 지역의 풍부한 철 자원과 하천유역의 충적대지가 주는 농업생산력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보다 우월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삼국시대 이후에는 정치적 각축장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중원 고구려비’이다.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1) ◇忠州市 中原郡, 1985. 『忠州 中原誌』. ◇충청북도·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1992. 『忠清北道誌』(上). ◇임덕순, 2000. 「충북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권」, 『충북과 중원문화』, (제3회 충북학심포지움자료).

이처럼 한국의 중부지역에서 충주지역은 청주와 더불어 예부터 문화의 중심지이다. 이곳은 광산자본이 풍부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농산물산으로 인해 통일신라말 이래 지방호족의 중요한 근거지 중의 한 곳이기도 하였다. 또한 선사시대 생활유적과 역사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토기를 통하여 충주지역 토기와 자기문화의 발전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도자기의 원료인 도토가 생산되어 고려시대부터 청자가 제작되었고 조선 전기 世宗대에는 현재 충주시 연하리에서 중앙에 바치는 공물의 하나로 분청사기를 생산한 기록이 『世宗實錄』 「地理志」에 있다. 조선 후기에는 충주백토가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백자원료로 사용되었던 기록이 『備邊司謄錄』 숙종조에 있어 충주지역의 도자기 문화는 그 뿌리가 상당히 오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는 하늘재를 중심으로 충주와 문경에서 수집 곳의 백자가마터가 조사되었고 이 중에 한 곳인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에서는 1994년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백자가마터를 발굴하여 현재 보호각이 세워져 충주지방의 중요한 국민교육 현장으로써 그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충주지역 도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충주의 도자가 한국문화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고 또한 앞으로 어떤 의의를 지닐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충주지역 도자의 역사를 구명하기 위해, 선사시대부터 20세기 전반까지 각종 유적으로부터 발굴된 자료, 지표조사 자료, 보고서, 기타 등을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관련 문헌자료의 조사를 통하여 역사적 사실과 위치를 파악하고, 가마터는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유적 확인 및 도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기왕에 조사된 집자리, 무덤, 기타 유적 등은 보고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와 자료를 중심으로 정밀 비교 분석하여 충주지역 도자의 원류를 파악함으로써 역사와 문화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 II. 연구사와 문헌기록

### 1. 연구사

충주지역 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일인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가마터는 아사카와 노리다카(淺川伯教)에 의해 조사되었다.<sup>2)</sup> 1960년대 유적과 유물에 대한 지표조사

2) 淺川伯教, 1956. 「李朝窯跡一覽表」 『世界陶磁全集』 14 李朝篇 (동경 : 河出書房).

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인 연구는 1977년 미륵리사지를 중심으로한 발굴과<sup>3)</sup> 1978년 충주댐 건설을 위한 사전 조사를 거쳐 1983~1985년에 충주댐 수몰지구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sup>4)</sup> 또한 1979년 중원 고구려비가 발견되면서 충주 지역이 학계에 주목을 끌었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충주지역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자료가 빠르게 축적되었다.

그 중 陶磁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는 사실상 1992년 충북지방 도요지 지표조사가 실시되면서 시작되었다.<sup>5)</sup> 그 이후 분묘유적의 조사에서 많은 양의 자기들이 출토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다.<sup>6)</sup> 특히 1994년 미륵리 가마터의 발굴은 18세기에서 근대에 이르는 충주지역 도자 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와 유구를 제공하였다.<sup>7)</sup> 그리고 2000년 충주 하구암리 철화백자가마터의 발굴은 미륵리 철화백자와 함께 충주지역의 철화백자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었다.<sup>8)</sup> 뿐만아니라, 불교유적(사지) 발굴은 당시 생활용기로 쓰인 자기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sup>9)</sup>

## 2. 문헌 기록

조선초기의 자기생산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은 『世宗實錄』 「地理志」이다. 충청도 충주목 조에는 寶蓮洞에서 磁器를, 月乎峴에서는 陶器를 생산하던 곳이 있다는

- 
- 3) ◇忠淸北道, 1987. 『彌勒里寺址 發掘調査報告書』. ◇中原郡, 1979. 『中原郡 彌勒里石窟實測調査報告書』; 『彌勒里寺址 2次 發掘調査報告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3. 「미륵리사지 3차 발굴조사보고서」. ◇청주대학교박물관, 1992. 『미륵리사지 4차 발굴조사보고서』; 1993. 『미륵리사지 5차 발굴조사보고서』.
- 4)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충주댐 문화유적발굴조사종합보고서』(고고, 고분분야Ⅱ).
- 5) 충북대학교박물관, 1993. 『충북지방 도요지 지표조사 보고서』.
- 6) ◇건국대학교박물관, 1994. 『충주 단월동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1995. 『충주 단월동 고분군 2차 발굴조사보고서』. ◇충주박물관, 1992. 『충주 단월동 고려묘』; 1996. 『충주 단월동 고려고분군』-제2차 발굴보고서; 1998. 『충주 호암동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7) 충북대학교박물관, 1995. 『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
- 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구간문화유적시·발굴조사보고서』. 17~18세기의 청화백자 가마터는 다른 지방에서도 알려지고 있어 충주지역 청화백자를 중심으로 비교연구가 가능하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8. 「後谷里白磁陶窯址」, 『住岩潭水沒地區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V(全南大學校博物館); 2000. 『安城 和谷里陶窯址』 朝鮮白磁·高麗陶器窯址發掘調査報告書. ◇忠南發展研究員, 2002. 『大田 壯安洞白磁窯址』.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순천 주암골프장 부지내 백자요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회의자료』 등은 철화백자가 출토된 지역이다.
- 9) ◇충주산업대학교박물관, 1996. 『忠州 靑龍寺址』. ◇충주시·예성문화동호회, 1995. 『승선사지 지표조사 보고서』. ◇충청대학교박물관, 2002. 『충주 승선사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2002. 『충주 승선사지 시굴 및 발굴(3차)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기록이 있다. 寶蓮洞은 현재 노은면 연하리로 추정되나 月乎峴의 위치는 파악되지 않는다.<sup>10)</sup> 이러한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연하리 분청사기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다.<sup>11)</sup>

그리고 中宗(1506~1544)때에는 沙峴과 충청도에서 백토를 굴취했다는 기록이 보이며, 경기도 광주 관요(분원)에서는 분원근방의 흙이나 혹은 중원토를 사용했고<sup>12)</sup>, 숙종(1674~1720)때에는 광주 분원의 백토가 일시 충주토로 사용되었던 기록이 있는데 비교적 양질이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sup>13)</sup> 이와 함께 이 지역의 지질구조와 조선후기의 가마터가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백자 생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충주지역은 백토의 산지인 동시에 도자문화가 발달하였고 우리나라 도자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다.

### Ⅲ. 도자 자료

선사시대부터 토기의 전통이 있었던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흙과 불을 다루는 지혜가 일찍부터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충주지역의 토기전통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고자 한다. 신석기 빗살무늬토기와 청동기 무문토기의 전통을 보여주는 곳은 지동리 A지구 유적과 조동리 유적을 들 수 있다.<sup>14)</sup> 삼한시대로 추정되는 곳은 충주댐 수몰지구내의 하천리 D지구가 있다.<sup>15)</sup> 이

10) 『世宗實錄』 卷 149. 地理志 忠州牧. “磁器所一在州西寶蓮洞 陶器所一在州北月乎峴 階下品”

11) 姜敬淑, 1997.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陶器所 研究-忠淸道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202, (韓國美術史學會), pp.1~95; 1997. 「『世宗實錄』 地理志 기록에 있는 磁器所 陶片의 특징-경기도와 충청도의 5곳 가마터를 중심으로」, 『考古美術史論』 5, (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pp.39~89.

12) 『중종실록』 권 67, 25년 2월 25일 己丑조

“승정원에 전교하였다. …그리고 사기를 번조하는 데 쓰는 백점토를 전에는 사현이나 충청도에서 갔다 썼는데 지금은 양근에서 파다 쓰고 있다.(傳于政院曰…且沙器燔造白粘土 前者或於沙峴 或於忠淸道取用 今則又於楊根地掘取)”라는 내용에서 보면 충청도의 구체적인 지명은 없으나, 박상(朴祥, 1474~1530)의 『눌재집 訥齋集』에 “…백점토는 매년 중원토(中原土)를 캐내고…”라는 대목이 있어 중원이 충주 근방일 것으로 추정되어 중종25년(1530)에 충청도의 백점토를 쓴다고 한 것도 충청도 충주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1530년 경에는 분원에서 충주의 흙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13) ◇『承政院日記』 第371冊, 肅宗 23年 4月 16日條 “…上上年 晉州白土土脈已盡……故以 忠州境所出白土掘取事…” ◇『承政院日記』 第372冊, 肅宗 23年 7月 26日條 “…故發送匠人于陰城 忠州等地 取來其處白土…”

14) ◇황용훈, 1984. 「中原紙洞里A地區 遺蹟發掘調查報告」, 『忠州댐 文化遺蹟發掘調查綜合報告書』 (考古, 古墳分野Ⅱ, (忠北大學校博物館). ◇忠北大學校博物館, 2001. 『忠州 早洞

곳에서 발견되는 토기의 특징은 사립과 석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든 적갈색 연질토기로서 둥근밑에 계란모양의 몸통과 넓은 목, 외반된 입술부를 갖는 것으로 하천리식 토기로 명명된다(그림 1). 그리고 삼국시대의 유적에서는 고구려 토기 양식은 볼 수 없고, 백제는 정식 발굴된 곳은 없으나 일부 수습품과 장미산성, 탄금대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sup>16)</sup> 신라의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가금면 누암리에서 하구암리에 이르는 고분군을 들 수 있다.<sup>17)</sup> 통일기의 고분으로는 단월동을 들 수 있다.<sup>18)</sup>

지금까지 학술발굴된 지역으로부터 출토된 도자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집자리 유적 출토 도자

충주지역의 집자리 유적에서 도자기가 출토된 것은 최근의 예이다. 특히 집자리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실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역사를 사람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 집자리 유적은 중부내륙 고속도로 예정구간의 갈동과 큰골유적에서 확인되었다.<sup>19)</sup> 집자리 뿐만 아니라 용도가 정확하지 않은 몇 가지 유적이 있었는데, 주거공간과 유사하거나 그와 연관성 있는 생활유적으로 생각되어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갈동유적에서는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6기와 석렬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1기의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유구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형태는 타원형이 주를 이루고 부분적으로 말각방형이며 내부에 온돌 혹은 화덕시설 등이 보인다.

출토유물은 연질과 경질 토기와 분청사기 저부편과 접시, 백자 발·접시·전접시 등 비교적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비교적 큰 기형이 대부분이고, 자기는 작은 일상용기였다. 분청사기는 횡선, 연관, 국화문 등의 문양이 시문되었

---

리 先士遺蹟(Ⅰ)』-1·2次 調査報告-; 2000. 『충주 조동리유적 제3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의자료』.

15) 김병모·최호림·김명진·심광주, 1984. 「中原荷川里D地區 遺蹟發掘調査報告書」, 『忠州덤 문화遺蹟發掘調査綜合報告書』(考古, 古墳分野Ⅱ), (忠北大學校博物館).

16) 백제의 유물로 추정되는 것으로는 주덕읍 원신중리에서 수습한 토기항아리와 노은 문성리의 長胴 壺등을 들 수 있다.

17) ◇文化財研究所, 1991. 『中原 樓岩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1992. 『中原 樓岩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1993. 『中原 樓岩里古墳群』.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中部內陸高速道路 忠州區間 文化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 2001. 『中部內陸高速道路 忠州區間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18) 건국대학교 박물관, 1994. 『충주 단월동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1995. 『충주 단월동 고분군 2차발굴조사보고서』.

1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中部內陸高速道路 忠州區間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는데 대부분 날개의 도장문다. 백자는 회백색의 유조를 띠고, 굵은 대마디굽이며 태토받침으로 변조하였다. 그리고 전접시는 유백색을 띠고 발색이 좋은 편이며 역삼각형굽에 태토받침으로 변조하였다. 내저면은 비교적 편평하고 기벽이 두꺼운 편이다(그림 2, 3).

큰골유적에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적석유구와 2·3호 구상(球狀)유구에서 자기 및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적석유구는 煙道로 추정되는 공간, 爐址, 株穴, 2단 석축의 일부, 주변 소토 등의 확인을 통하여 생활유적으로 추측하였다. 특히 노지와 연도부가 연결되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생활유구로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은 대호편, 토기발, 방추차, 기와편, 끌, 토기사면편병, 토기주름무늬병 등이다. 주목되는 점은 출토유물인데 대호편이나 토기발은 음성 오궁리유적 16호 가마에서 출토된 유물과 특징이 유사하고, 편병이나 주름무늬병은 통일신라말을 대표하는 토기로 주로 보령 진죽리나 영암 구림리 가마에서 제작되었다.<sup>20)</sup> 대호편은 회색 경질토기로 경부에는 음각의 파상문이 돌아가고 경부와 동체가 연결되는 부위와 동체상부에 1조와 3조의 돌대를 돌리고 있다. 외면에는 평행선문과 좁은 격자문, 굵은 격자문을 각각 시문하고 있으며 내면에는 박자흔적이 있다. 토기발은 흑회색과 암회갈색을 띠는 경질과 연결로 기벽이 비교적 두껍고 굵을 따로 붙였으며 구연이 외반하고 물레흔적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

구상유구에서는 회청색경토기편과 백자저부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백자는 회백색의 유조를 보이고 굵은 오목굽이며 변조받침은 굵은 모래를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생활유적을 포함한 집자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생활유구에서 출토되는 유물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통일신라말에서 고려 초기의 가마에서 보이는 동일한 형태의 기종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당시의 토기양상을 파악할 수 있고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음성 오궁리는 충주에서 거리상으로 볼 때 같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주 주변에 대호나 발과 같은 기종을 제작한 다른 가마가 있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해 진다. 그리고 편병과 주름무늬병을 생산한 가마가 아직까지 충주지역에서 확인된 예가 없어 제작 여부를 단적으로 판단

20)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陰成 梧弓里·文村里遺蹟』-국도 38호선(장호원~양성간) 확·포장공사 구간내.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88. 『靈岩郡 鳩林里土器窯址 發掘調査』; 1999. 『영암의 토기전통과 鳩林陶器』.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 「보령진죽리유적-현장설명회자료」. ◇이형원, 1999. 「보령 진죽리유적 발굴조사 개보」, 『제42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pp. 465~477.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적 교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상 생활용기로 많이 쓰이는 기종은 그 지역에서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특정 기종은 일정지역의 대규모 가마에서 제작하여 전국으로 보내지는 경제구조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16세기 이전으로 추정되는 분청사기, 백자, 토기 등 조선시대 전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출토 유물은 백자가 주를 이루고 토기와 분청사기가 함께 동반된다. 자기와 토기의 동반상태로 볼 때 자기는 일상의 식생활 용기가 대부분이고 토기는 완전한 형태는 볼 수 없지만 비교적 큰 기형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보아 식생활 이외의 저장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보아 조선시대에 주종을 이루는 것은 백자였지만 토기가 함께 사용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었다. 특히 출토유물이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분묘 유적 출토 도자

충주지역에서 조사된 분묘 유적 중 도자기가 출토되는 곳은 단월동, 호암동, 연수동, 통점, 갈동 등이 있다. 단월동과 호암동은 여러 차례의 조사와 함께 많은 양의 도자기가 출토되었다. 사실 충주지역의 고려, 조선 분묘연구의 시작도 단월동과 호암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유적별로 출토유물을 살펴보자.

### 가. 단월동 유적<sup>21)</sup>

단월동 유적은 네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 충주박물관에 의해 두 차례 조사되었고 건국대학교에 의해 조사되었다. 충주박물관에 의해 1차 조사된 유구는 석곽묘 11기, 토광묘 6기, 회곽묘 2기이다. 그리고 2차 조사된 유구는 석곽묘 9기, 토광묘 1기, 화장묘 1기, 회곽묘 7기로 총 17기이다. 그 중 자기가 출토되는 유구는 석곽 7기, 토광묘 1기, 화장묘 1기 등 9기로 비교적 많은 수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건국대학교에서 실시한 2차 발굴조사는 A지구와 B지구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각각 5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B지구 3호에서 자기가 출토되었다. 건국대학교 1차 조사를 제외하고 47개의 유구가 발굴되었고 그중 20개의 유구에서 42점의 도자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청자가 주를 이루고 소량의 분청사기와 기타 토기와 중국동전들이 출토되었다.

21) ◇忠州博物館, 1992. 『충주 단월동 고려묘』; 1996. 『충주 단월동 고려고분군』 -제2차 발굴보고서-. ◇건국대학교 박물관, 1994. 『충주 단월동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1995. 『충주 단월동 고분군 2차발굴조사보고서』.

출토 유물의 종류와 특징은 청자철화문병과 청자대접이 주를 이루고 접시, 잔, 탁잔, 과형주자, 유병, 명기병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충주박물관 1차 발굴에서는 청자병과 청자대접이 거의 모든 유구에서 동반되어 출토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특징을 알아보면, 병은 광구병으로 대부분 철화초문이 시문되었고, 매병은 최대경이 견부에 있고 형태에 있어서 당당함이 살아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문양은 소문청자, 음각앵무문, 음각뇌문, 양각모란문, 철화문등 상감청자 이전의 것들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일부 말기청자로 보이는 상감청자와 각접시 등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질적으로는 대부분 조질에 속한다. 이와 동반되는 동전들은 咸平元寶(998-1003), 開元通寶(998-1009), 淳??寶, 元??寶, 祥符元寶(1088-1016), 皇宋通寶(1039), 熙寧元寶(1068-1077), 元豐通寶(1078-1085), 元祐通寶(1086-1093) 등이 있다. 동전의 특성상 전세의 가능성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동반되는 청자의 시기와 거의 유사하여 편년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분청사기는 분청 말기를 보이는 귀얄문분청사기가 출토되었다(사진 1).

#### 나. 호암동 유적<sup>22)</sup>

호암동 유적은 충주박물관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 1차 조사는 1, 2지구로 각각 나누어서 조사되었다. 조사된 유구는 수가 많았고 또한 출토된 자기 유물의 양도 상당하였다. 먼저 1지구에서는 46기의 토광묘 중 9기의 토광묘에서 자기가 출토되었고, 2지구에서는 2기의 회곽묘와 90기의 토광묘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23기의 토광묘에서 자기가 출토되었다. 가·나지구로 조사한 2차 조사에서는 가지구에서 11기의 토광묘와 1기의 회곽묘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4기의 토광묘에서 자기가 출토되었다. 나지구에서는 토광묘 16기, 석곽묘 5기, 회곽묘 1기 등 총 22기의 유구가 조사되었고, 토광묘 4기에서 많은 양의 자기가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단월동이 청자가 주를 이루는 것에 비해, 분청사기, 백자, 토기 그리고 중국동전들이 동반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의 특징은 1차 2지구와 2차 나지구에서 출토된 청자대접과 접시, 과형주자, 광구병 등의 기종을 볼 수 있다. 대부분 녹색이나 갈색조의 조질청자가 대부분이고 일부 양질 청자가 보이기도 한다. 문양은 소문이 많고 압출양각의 모란당초문, 음각의 당초문, 연판문, 뇌문도 있다. 이들은 12세기 이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동반되는 동전은 開元通寶(998-1009), 元豐通寶(1078-1085), 崇寧通寶·重寶(1102-1106)가 있다. 분청사기는 양이 적지만 인화문, 증권문의 횡선문, 그리고 귀얄문의 특징이 있다. 백자는 접시와 대접이 주를 이루고 병과 명기 등도

22) 忠州博物館, 1998. 『충주 호암동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있다. 그 특징은 백자대접과 접시는 유백색과 회백색의 유조를 띠고 대마디굽에 태토빛음반침으로 번조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역삼각형굽과 오목굽에 모래반침으로 번조된 것을 볼 수 있다. 백자와 동반되는 동전은 熙寧元寶(1068-1077), 政和通寶(1111-1117), 元祐通寶(1086-1093), 開禧通寶(1205-) 등이 보이는데 시기적으로 백자의 시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세품이든지 아니면 후대에 인위적으로 들어갔든 터인데 발굴자가 밝히지 않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백자의 특징은 시기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17세기 이전의 것이고 부분적으로 그 이후 것이 더러 보인다(사진 2).

#### 다. 연수동 유적<sup>23)</sup>

충주 연수동 유적은 가, 나지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가지역에서 6기의 분묘가, 나지역에서 3동의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자기유물은 가지역의 6호묘와 나지역 건물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나지역의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청자, 분청, 백자 등은 대부분 지표수습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한 관련성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역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유물만을 다루었다.

출토유물은 청자광구병편, 청자대접편, 청자상감국화문팔각접시 등의 청자와 토기병이 동반출토되었다. 청자유물은 청자대접이 담청색을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조질로 유약의 발색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유물의 동반상태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장용 자기로 특별 제작한 것이 아니라면 생활용기 등으로 사용되며 전세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기는 고려상감청자 가장 마지막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구간 유적<sup>24)</sup>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구간 유적에서 자기 유물이 찾아진 곳은 통점 고분군Ⅱ와 갈동유적이다.

통점고분군은 1차조사에서 발굴된 곳으로 3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는데, 그 중 3호 석곽묘에서 분청사기 대접이 1점 출토되었다. 이 석곽은 비교적 작은 크기이고, 바닥석 아래를 굴광하여 분청사기를 매납하였다. 분청사기는 회청색을 띠고 대마디굽에 세 곳에 태토빛음 흔적이 확인되며 구연은 외반한다. 내면 동체부에 국화문이 시문되었고 그 위와 아래로 음각선을 돌리고 있다(그림 5).

갈동유적은 2차 조사에서 발굴한 곳으로 주거지 5기. 석곽묘와 회곽묘가 각각 1

23) 忠州大學校 博物館, 1999. 『忠州連守洞宅地開發豫定敷地內遺蹟 發掘調査報告書』.

24)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中部內陸高速道路 忠州區間 文化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 2001. 『中部內陸高速道路 忠州區間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기, 토광묘 2기, 석렬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자기가 출토된 유구는 회곽묘와 1호 토광묘이다. 회곽묘에서는 백자 명기 탁잔과 향로가 출토되었는데 회백색의 유조를 띠고 굵은 모래를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1호 토광묘에서는 백자 마상배가 출토되었고 그 특징을 보면 회백색의 유조를 띠고 번조받침은 태토빚음을 사용하였다. 굵은 외반하고, 배신은 내저곡면으로 구연부가 외반한다. 시기는 17세기 정도로 추정된다(그림 6).

지금까지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았다. 비교적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주지역 분묘에서 출토되는 자기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고려이후 도자양상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청자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으로 사발과 대접류가 주를 이루고 병, 주자, 탁잔, 매병 등 비교적 다양한 기종을 보이고 있다. 시기는 11·12세기로 추정되는 순청자, 음각, 양각, 압출양각 기법의 청자, 철화청자가 보이고 부분적으로 상감청자도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보이는 양질의 청자와 질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당시 비색의 절정을 보이던 과형병의 형태를 보이는 주자 등이 주목된다. 이러한 특징은 당시 충주지역의 지배세력 혹은 호족세력이 그 배경이 아니었을까 한다.

조선시대 자기는 청자에 비하여 그 양이 적으나 주로 백자가 많고 부분적으로 분청사기도 있다. 분청사기는 적은 양이지만 인화분청과 귀얄문분청사기가 있다. 그리고 백자는 대마디굽과 태토받침을 특징으로 하는 16세기 이전의 것과 오목굽, 역삼각형굽, 수직굽과 굵은 모래받침의 번조기법으로 보아 16세기 이후의 것으로 구분된다. 생활용기가 아닌 명기를 따로 제작하여 매납한 예도 보이는데 명기는 조선 중기 약 150년간, 즉 16세기 초에서 17세기 후반까지 사용된 것으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까지 그 절정을 이루었다.<sup>25)</sup>

### 3. 사지 유적 출토 도자

#### 가. 청룡사지<sup>26)</sup>

청룡사는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 32번지에 위치한다. 구룡리와 주터리 백자가 마 인근에 위치하며 유물상이 유사하여 주목된다. 청룡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고려기와와 약간의 청자편을 포함하고 조선시대 유물이 주류이다. 출토된 자기유물

25) 李芝賢, 2000. 「朝鮮時代 明器의 研究」-白磁明器를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忠州産業大學校 博物館, 1993. 『忠州 靑龍寺址』-發掘調査 報告書-.

은 청자접시편 1점, 분청사기편 10점, 백자편 79점, 청화백자편 1점, 조선청자편 1점 등이 보고되었다.

분청사기는 대접편, 접시편, 뚜껑편, 동체편, 대호편 등이 있는데, 대부분 인화분청으로 최성기 이전의 것과 15세기 중엽 최성기의 것, 그리고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의 상감분청이 있다.

백자는 발, 접시, 완, 잔, 연적, 제기, 호, 병, 마상배, 연봉편 등 다양한 기종과 저부편들이다. 굽은 대마디굽, 오목굽, 수직굽, 절두도립삼각형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번조받침은 태토받침, 가는 모래와 굽은 모래 등을 사용하였다. 백자저부에는 묵서명과 징각을 한 것이 일부 보인다. 징각은 송선사지에서도 다량 출토되고 있다. 일부 양질 백자가 있는데 이는 분원 백자와 연관되었고, 몇 점은 안성 화곡리 제작 백자와 연결시키고 있으나<sup>27)</sup> 17~18세기 충주지역에서 찾아지는 가마인 하구암리 출토 유물도 유사함을 볼 수 있어서 충주지역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28)</sup> 시기는 16~18세기까지로 추정된다.

#### 나. 송선사지<sup>29)</sup>

『高麗史』에 의하면 송선사는 고려 광종 5년(954) 母后(神明順成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한 國刹이다.<sup>30)</sup> 이와 더불어 발굴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막새와 당초문 암막새기와가 고려초기로 편년되었고, 명문와에서도 그 존속기간을 알 수 있다. 당시 忠州 劉氏의 외척 세력과 호족의 회유책이라는 시대상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출토유물은 와편을 비롯한 자기, 불상, 금속류 등 다양하며 비교 고찰이 가능하다.

##### (1) 기와류

출토된 기와류는 막새기와와 명문기와, 치미편, 연화문 막새, 물고기문 이형와, 전, 망새기와, 나팔형와 등 다양하다. 막새기와는 암·수막새로 구분되는데, 암막새는 蓮唐草紋이 주문양을 이루고 草花紋과 卍字紋 등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과 梵字紋 좌우에 萬曆, 己卯명이 있는 것, 막새부를 수직으로 구획하여 시주자명을 기록한 조선시대의 것이 있다. 수막새기와는 연화문이 여러 형태로 변형된 것과

27)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0. 『安城 和谷里陶窯址』 朝鮮白磁·高麗陶器窯址發掘調查報告書.

2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中部內陸高速道路 忠州區間 文化遺蹟 試·發掘調查報告書』, pp. 50~108.

29) ◇충주시·예성문화동호회, 1995. 『송선사지 지표조사 보고서』. ◇충청대학 박물관, 2001. 『충주 송선사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2002. 『충주 송선사지 시굴 및 발굴(3차)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30) 『高麗史』世家, 卷第 2, 光宗. “五年春創崇善寺追福先妣”라는 기록이 있다.

외목문의 고려시대 수막새기와와 세엽화한 연화문, 범자문의 조선시대 것이 있다. 명문와는 연호가 있는 것과 施主, 化主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명문와의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송선사지출토 명문와 내용

	春 創崇善寺 追福先	954년 추정
고려 명종 12년	大定 22年 壬寅	1182년
조선 명종 6년	嘉靖二十九申亥年/三月廿六日/化主 志閑故/主+又空	1551년
조선 명종 16년	嘉靖四十年/辛酉四月日化...	1561년
조선 선조 12년	萬曆/己卯	1579년

### (2) 자기류

출토된 자기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 그리고 옹기류가 있다. 청자는 수량이 많지 않지만 해무리굽 청자, 순청자 소형 화형접시, 음각 모란문, 상감 국화문, 고려말로 보이는 녹색색의 유조를 띠는 상감청자까지 다양하게 고려 전시기를 보여주고 있다(사진 3).

분청사기류는 장군, 여러줄의 동심원이 음각된 대접, 귀얄문 파편 등이 있다(사진 4).

백자류는 조선초기 선상감문에서부터 18-19세기에 이르는 것으로 많은 수량이 출토되었다. 대부분 조질을 띠는 것이 많이 있지만 양질의 자기들도 보인다. 특히 그릇의 내 외면에 정각을 한 것이 다수 출토되는데, 정각의 내용은 사용자를 표시한 한자나 기호들이다. 옹기는 장군, 항아리, 단지 등의 생활용기들이다(사진 5).

### (3) 기타

고려초로 추정되는 금동보살상 2구, 소탑, 청동종, 금강령 등이 있고 그밖에 철제류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건물지의 1차 중창기는 1182년(고려 명종 6년, 大定 22)으로 추정하였다. 그 이유는 明宗年間에 충주지방에 미륵리사지, 오갑사지, 의림사지 등에서 대규모 불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송선사지에서도 대규모의 불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발굴조사 결과 회랑이 폐기되면서 송선사의 축선이 남북에서 동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었다. 2차 중창은 1579년(조선 선조 1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같은 추정은 사역의 축선이 다시 남·북방향으로 전환되고 사역의 南端에 석축이 증축되면서 다시 가람의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이 시기의 유물이 전 지역에서 고루 출토된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지금까지 청룡사지와 송선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았다. 이 두 유적은 물론 충주에 산재해 있는 많은 사지유적에 비하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고려 국찰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송선사지를 통하여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자기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청룡사지는 주로 조선시대 도자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송선사지에서 출토되는 청자는 해무리굽 청자를 비롯한 화형접시등이 10세기의 도자양상을 보여주고, 연판문과 그 밖의 순청자들이 11·12세기의 특징을 보여주며 그 뒤를 잇는 상감청자도 있다. 출토된 청자는 많은 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양질의 청자는 당시의 사찰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송선사지와 청룡사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는 양이 많지 않으나 상감, 인화, 귀얄까지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두 유적에서 출토된 백자는 시기적으로 조선시대 전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것으로 출토양도 많다. 대부분 조질의 백자가 차지하나 부분적으로 양질의 백자도 보인다. 출토된 백자의 기종은 생활용기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연적이거나 건축물에 사용되는 연봉(사진 6) 등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자기에 묵서명과 정각한 특징들도 있다.

#### 4. 가마유적 출토 도자<sup>31)</sup>

충주지역에서 조사된 가마유적은 지표 조사가 대부분이고 발굴된 가마터는 상모면 미륵리와 가금면 하구암리 두 곳이지만 상당수의 가마가 조사 보고되어 있다(그림 7). 이들을 모두 <표 2>에서 볼 수 있고, 출토도편의 특징은 지역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백자의 시기구분은 학자들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필자의 시기구분에 따라 전기 1392년~1600년경, 중기 1600년~1751년, 후기 1751년~1883년, 말기 1883년~1950년 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가마터들의 시기를 보려고 한다.<sup>32)</sup>

##### 가. 양성면

양성면에서 조사된 가마는 모두 12개소이다. 모점리 동막마을 사기골에서 5기, 용대리, 용포리, 사미리 사리골, 조천리 가기점골, 지당리, 영죽리, 마련리 마장 등이다.

이 중 용대리와 영죽리는 조선시대 전기에서 중기로 편년되어 비교적 이른시기에 활동하였고 특히 충주지역 생활유적에서 찾아지는 기형과 유사한 점이 보여 주목된다. 유물의 특징은 접시, 대접, 잔류가 주를 이루고 태토빛음받침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영죽리는 비교적 예리한 굽과 전접시류도 확인된다(사진 7).

다음 시기에 해당되는 곳은 모점리 사기골 1·2·3·4호와 용포리, 지당리, 마련리 마장 등의 가마들이다. 기종은 대접, 접시, 종지 등 생활용기가 대부분이다. 유색은 회백색을 띠는 것이 주를 이루나 용포리에서는 비교적 발색이 좋은 청색을 띠는 유백색도 볼 수 있다. 굽은 오목굽이 대부분이나 역삼각형굽과 수직굽이 일부 보이고 굽은 모래받침이다. 모점리 사기골 가마는 철화백자 이전 단계의 것으로 보이는데, 기형을 보면 구연이 직립하거나 외반하고 대부분 내저면에 원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포리, 지당리, 마련리 마장의 가마터는 철화백자가 있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오목굽이 비교적 낮고 단아한 반면 사발과 대접 같은 비교적 큰 기종에서는 높은 오목굽이 보통이다. 접시류에서는 전이 꺾여 구연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는 기형이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모점리 4호 가마는 철화백자가 주를 이루지만 일부 제기류 등이 있어 중기에서 후기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추측된다(사진 8).

31) ◇忠北大學校博物館, 1993. 『忠北地方 陶窯址 地表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忠州市-』.

32) 姜敬淑, 1992. 『韓國陶磁史』(一志社), pp. 369-455.

<표 2> 충주지역 가마유적 현황

번호	유적명	시기	기타
1	양성면 모점리 사기골 1호	백자(중기)	
2	양성면 모점리 사기골 2호	백자(중기)	
3	양성면 모점리 3호	백자(중기)	
4	양성면 모점리 4호	백자(중기~후기)	
5	양성면 모점리 5호	백자(후기)	
6	양성면 용대리	백자(전기~중기)	
7	양성면 용포리	백자(중기)	(철화)
8	양성면 사미리 사리골	백자(후기)	
9	양성면 조천리 사기점	백자(후기)	
10	양성면 지당리	백자(중기)	
11	양성면 영죽리	백자(전기~중기)	
12	양성면 마런리 마장	백자(중기)	
13	소태면 구룡리1호	백자(중기)	
14	소태면 구룡리 2호	백자(후기)	
15	소태면 구룡리 백자요지	백자(후기)	
16	소태면 동막리 백자산포지	백자(후기)	
17	소태면 야동리 백자요지	백자(중기)	
18	소태면 주치리 1호	백자(후기)	
19	소태면 주치리 2호	백자(중기)	
20	소태면 주치리 3호	백자(후기)	
21	가금면 봉황리	백자(후기)	
22	가금면 하구암리 사기점골	백자(중기)	발굴(철화)
23	노은면 대덕리	백자	
24	노은면 수룡리	백자	
25	노은면 연화리 가마골	분청(초기)	
26	상모면 미륵리 1호	백자(근대)	발굴
27	상모면 미륵리 2호	백자(근대)	발굴
28	상모면 미륵리 3호	백자(중기)	발굴(철화)
29	상모면 미륵리 4호	백자(근대)	발굴
30	상모면 미륵리 접말	백자(후기)	
31	상모면 미륵리 하늘재	백자(후기)	
32	문송리 능안고개 백자요지	백자(후기)	

후기로 편년되는 가마는 모점리 사리골 5호, 사미리 사리골, 조천리 사기점터 등이다. 후기 가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릇에 각을 만들거나 높은 받침이 있는 제기류가 많이 있다는 점이다. 유색은 회백색이 주를 이루고 굽은 오목굽이나 수직 굽과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고, 번조받침은 모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일부 청화백자가 있다. 모점리 5호에서 청화백자와 ‘福’자등과 같은 명문이 확인되었다(사진 9).

#### 나. 소태면

소태면에서 조사된 가마는 구룡리 백자 가마터를 비롯해 1·2호 가마가 있고, 동막리 백자산포지, 야동리 백자 가마터, 주치리 1·2·3호 등 총 8개소가 있다.

중기에 해당되는 곳은 구룡리 1호, 야동리, 주치리 2호 가마가 있다. 유물의 특징을 보면 회백색의 유조를 띠며 굽은 모래받침의 오목굽이다. 구룡리 1호와 주치리 2호유물은 대부분 내저원각이 확인된다. 그리고 야동리 기형은 철화백자와 유사한 특징을 볼 수 있다(사진 10, 11).

구룡리 2호, 주치리 1·3호 가마는 제기류가 있다. 주치리 1호의 제기류는 굽이 7각에서 9각까지 다양하고, 주치리 3호에서는 제기형 도지미도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구룡리 가마와 동막리 백자산포지에서는 기벽이 두껍고 동체가 둥근 곡면을 이루고, 굽은 높은 형태든 낮은 형태든 수직굽의 특징을 보이는 후기 백자가 출토된다(사진 12).

#### 다. 가금면

가금면에서는 하구암리 사기점골과 봉황리 가마가 있다.

하구암리는 정식 발굴조사된 철화백자 가마로 중기로 편년되는 가마이다. 가마 구조는 오름칸가마의 형태를 하였고 아궁이와 두 개의 소성실이 조사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특징은 아궁이의 길이가 380cm정도로 길이가 길고 경사도가 19°로 급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의 지방백자 가마에서 보이는 특징이다.<sup>33)</sup> 그러나 소성실은 약 11°정도의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사진 13).

출토유물은 백자접시, 발, 종지, 호 등의 생활용기로 대부분 회백색의 유조를 띠고, 굽은 약간의 형태적 차이를 보이거나 모두 오목굽이고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그

33) ◇忠南發展研究員, 2002. 『大田 壯安洞 白磁窯址』.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순천 주암골프장 부지내 백자요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한림대학교박물관, 2002. 『귀래-매지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및 현장설명회 자료집』.

리고 부분적으로 비교적 단순화된 철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발은 기형에 있어 구연이 외반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일부 직립하는 것이 있다. 접시의 구연이 외반하거나 직립하는 비율이 거의 유사하고, 철화백자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구연부를 수직에 가깝게 꺾은 형태도 많이 있고, 부분적으로 내저원각이 있기도 하다(그림 8).<sup>34)</sup>

봉황리 가마 유물의 특징은 제기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다. 대부분 회백색의 유조를 띠고 굽받침에는 모래를 사용하였다. 발은 낮은 수직굽인데 굽안쪽을 깊게 꺾었고, 제기는 높은 수직굽이다.

## 라. 노은면

노은면에서는 분청사기 가마터인 연화리 가마골과 대덕리, 수룡리의 백자가마가 있다. 그러나 대덕리와 수룡리 가마는 후기 백자편이 잔재해 있으나 파괴가 심하고 그 특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 연화리 분청사기 가마만을 기술하고자 한다.<sup>35)</sup>

연하리는 『世宗實錄』 「地理志」 충청도 토산조에 “磁器所一在州西寶蓮洞 陶器所一在州北月乎峴 階下品”이라는 기록이 있다. 수습된 유물은 대접이나 접시가 주를 이루고 매병이나 병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대마디굽에 태토빛음받침을 하여 포개구이를 하였다.

문양 특징은 대접 경우, 상감기법의 연당초문과 인화기법의 도장문, 상감기법의 상·하 중권문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상감기법의 연당초문은 단순 생략되는 과정을 거치고 흑백상감도 백상감으로 바뀌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당초덩쿨의 표현도 파도문과 같은 문양으로 단순화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인화기법은 중심문양대 안에 성긴 도장을 찍고 일부 집단연권문 등이 배풀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생략현상이 더욱 심해져 상·하 문양구획선만이 남게되는 중권문의 특징을 볼 수 있다(그림 9).

접시는 내저면 중앙에 한 개의 국화문이 있거나 무문이고 파상문대, 연주문대, 국문대, 복관문대의 구성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내측면에는 네 곳에 초문, 네 곳에 오리 혹은 추상문 또는 네 곳에 초문과 파도문이 표시되기도 한다. 외면은 구연부

34)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中部內陸高速道路 忠州區間 文化遺蹟 試·發掘調查報告書』, pp. 52~108.

35) ◇姜敬淑, 1994.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陶器所 研究-忠淸道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202 (韓國美術史學會), pp.1~95; 1997. 「『世宗實錄』 地理志 기록에 있는 磁器所 陶片의 특징-경기도와 충청도의 5곳 가마터를 중심으로」, 『考古美術史論』 5(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pp.39~89. 의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근처에 2~3줄의 백상감선문이 있다. 특히 고려적인 요소가 일부 남아 있어 주목된다. 즉 외면은 각이 없는 둥근형태이나 구획선만으로 면을 분할한 후 꽃 도장을 하나씩 찍음으로써 고려팔각접시의 여운을 남긴것이라든지, 접시 내면 중앙에 학 무늬가 상감된 것등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그림 10).

매병은 이 시기의 특징적인 연판문이 새겨져 있고 그 위로 흑백상감문이 일부 보인다. 그리고 항아리는 굽다리가 가늘고 얇은 특징정도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양적, 형식적 특징은 문헌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15세기 초(1424~1432년)로 편년할 수 있다.

## 마. 상모면

상모면에는 미륵리 1·2·3·4호 가마와 점말, 하늘재 가마가 있다. 미륵리 가마는 정식 발굴을 통해 조사된 곳으로 조선 중기에서 근대에 이르는 자기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호 가마는 현장에 복원되어 교육의 현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점말과 하늘재는 후기로 추정되는 가마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거의 성격이 같기 때문에 따로 기술하지 않기로 하겠다. 미륵리 가마를 호수별로 다음과 같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sup>36)</sup>

### (1) 미륵리 1호 가마

미륵리 1호 가마는 비교적 그 잔존상태가 양호하다. 모두 9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름계단식 연실칸가마의 형태로 아궁이에서 굴뚝부까지 그 형태를 잘 알 수 있는 가마이다. 가마유구는 낮은 경사도를 나타내며 위칸으로 올라갈수록 계단형태가 미미해 지고 경사도도 완만해진다. 남벽에 출입시설이 있고 구릉쪽인 북벽은 2중구조의 벽을 축조하였다(사진 14).

출토유물은 사발, 대접, 접시, 부속도구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굽은 낮고 굽내면을 외면보다 깊게 깎고 있다. 사발은 내저면이 편평하고 기벽은 거의 사선에 가깝게 올라가고 구연은 직립한다. 대접은 높이가 낮고 내저면이 편평하고 기벽은 거의 사선에 가깝게 올라가고 구연은 직립한다. 접시는 내저면이 편평하고 넓으며 운두가 낮고 기벽은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은 둥글게 마무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연부가 두꺼워지기도 한다. 부속도구로는 갑발과 뚜껑, 제기와 유사한 높은 굽다리 도지미와 원반형 도지미가 있다(그림 11).

제작시기는 1920년에서 1950년 사이로 추정된다.

36) 忠北大學校博物館, 1995. 『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

## (2) 미륵리 2호 가마

미륵리 2호 가마는 전형적인 토석혼축가마로 오름연실칸가마의 형태를 하였으나 가마주변에 있는 소로와 신설도로로 인해 많은 부분 파괴되어 북벽일부와 7칸의 소성실 일부가 조사되었다. 가마의 칸벽이 심하게 아래로 휘어져 있고 소성실 바닥은 출입통로의 구분이 없이 경사를 이루고 있다. 소성실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일정한 길이로 길어진다(사진 15).

그리고 2호가마의 출토유물은 교란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2호 가마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것은 없었다.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 (3) 미륵리 3호 가마

미륵리 3호 가마는 철화백자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마지막 한 칸만이 잔존한다. 가마는 생토면을 그대로 파고 들어가 조성하였으며 구룡의 자연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한 오름가마이다. 그리고 가마 동쪽으로 퇴적층이 남아있다. 가마내부에서의 출토유물은 둥근 경사진 도지미만이 있었고 유물의 양상은 퇴적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출토유물의 기종은 사발, 대접, 접시, 종지 등 생활용기가 주를 이루고 일부 항아리와 병 등도 있다. 유물의 전체적인 특징은 회백색의 유조를 띠고, 굽은 오목굽에 모래받침이다. 사발은 내저원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구연은 모두 외반하는 특징을 보인다. 대접은 내저면에서 완만한 곡면으로 연결되어 구연이 직립하는 것과 내저면이 넓고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짧은 사선의 기벽과 외반되는 구연이 있는 것이 있다. 접시는 철화백자의 기형에서 많이 보이는 구연부가 수직에 가깝게 꺾이는 것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내저곡면의 직립구연과 외반구연의 접시들도 있다. 종지는 내저면에 깊은 원각이 있고 구연이 외반하는 형태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내저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기벽이 수직으로 꺾여 구연이 직립하는 것도 있다(그림 12). 철화무늬의 특징은 당초무늬와 초문계열인데, 당초문은 화염문과 같이 비교적 복잡한 형태와 해체되어 단순화된 2종류가 있다. 초문은 난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것과 마치 나무를 연상케 하는 수목문 형태가 있다.<sup>37)</sup> 시기는 17, 18세기로 추정된다.

37) 주 8)앞의 책.

미륵리 이외에 철화백자가 생산된 가마는 승주 후곡리, 안성 화곡리, 대전 장안동, 충주 하구암리, 순천 문길리 등이 있다. 철화문양을 비교해 보면 미륵리 사발류에서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구성을 보인다. 안성 화곡리에서 약간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접시에는 접 몇 개를 찍은 것이 일반적이다. 호나 병에는 둥근 곡선을 한 번 휘어 감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 (4) 미특리 4호 가마

4호 백자가마는 계단식 벽돌칸가마로 6개의 소성실이 확인되었고 사용기간도 길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과정에서 1호가마와 중복되어 완전한 형태의 파악은 불가능하였다. 각 소성실은 구릉의 경사를 완전히 제거하여 수평으로 만들었다. 소성실은 출입구를 남쪽으로 내고 있으며 남벽의 기초바닥은 생토층은 바닥으로 하여 석축으로 출입구 주변을 깔고 있고 각 칸의 경계는 벽돌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축조하였다. 소성실의 규모는 올라가면서 약 1m가량 넓어지는 구조를 보인다. 출토유물은 많지 않지만 1호 퇴적층과 기형, 문양이 유사한 친연성을 보인다. 1호 퇴적층에서 보이는 기형과 유사한 청화백자의 기형도 있다.

미특리 1호 퇴적의 유물양상은 모두 4층으로 이루어졌다. 4층의 퇴적은 시간 폭이 크지 않아 기형이나 무늬의 차이는 거의 없다. 기형은 사발, 대접, 접시, 종지 등의 생활용기가 주종을 이룬다. 전체적인 특징은 사발, 대접, 접시의 굽은 비교적 정교한 수직굽이고, 종지는 오목굽과 안굽의 형태를 취하고 번조기법은 모두 굽은 모래를 사용하였다. 유조는 밝은 백색을 띠고 유약의 용융상태도 양호하며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청화문양에 있다.

사발은 내저면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구연이 직립하는 것과 내저면이 넓어 기벽이 사면으로 올라가는 것, 기벽이 둥글게 내만한 주발형태이며 겹아가리식으로 동그랗게 처리한 유형이 있다. 대접은 내저면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구연이 직립하는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분적으로 기벽을 둥글게 내만시킨 주발형에 구연을 겹아가리식으로 동그랗게 처리한 유형이 있다. 접시는 내저면이 얇고 기벽이 사면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내저면이 다소 깊고 기벽이 비교적 높지 않아 곡면을 띠는 형태도 약간 보인다. 종지는 오목굽과 안굽이라는 굽의 형태의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기형은 저부에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기벽이 올라가는 특징이다. 청화무늬는 포도덩쿨무늬, 초무늬, 문자무늬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 사발과 대접의 외면 상단 두 곳에 좌우대칭으로 그려지는 것이 많고 드물게 안바닥에 문자가 씌여지는 예가 있다. 대체로 퇴적층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청화문의 수량이 줄고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하층에서는 포도문의 경우 사실적인 나뭇잎과 덩쿨이 표현되었다. 초문도 하층에서는 여러선을 이용하여 사실적으로 그렸으나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생략되어 대나무잎과 유사한 두 개의 선 정도로 단순화 된다. 그리고 문자는 壽, 福, 壽·福, 天, 上, 菘面, 舞 등이 있고 지표에서 수습된 것에는 제작자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姜永雄’이라는 것도 보인다. 또한 전사기법의 백자편이 수습되어 일본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3).

제작시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 바. 신리면

신리면에서는 문승리 능안고개 백자 가마가 있는데 대접, 사발, 접시, 제기 등의 기종이 보인다. 회백색의 유조를 보이고 모래를 이용하여 번조하였고 시기적으로는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충주지역에서 조사된 가마터 유적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조사된 가마는 모두 조선시대로 편년되는 것으로 분청사기 가마인 연화리를 비롯한 전기에 해당되는 가마가 있었고, 전기에서 중기로 추정되는 곳이 2개소 있다. 그리고 중기 이후로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장수공업의 형태 변화와 수취체제의 변화 등이 중기 이후에 있었고, 후기에는 사변이 증가하며 지방 가마의 수가 증가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의 가마는 남한강 수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었으나, 후기이후 근대에는 고갯길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구조와 수요층의 변화 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 IV. 도자의 역사와 문화

충주지역 도자의 역사는 앞서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신석기시대 이래로 흙으로 그릇을 빚어 사용하였고, 고려시대에 청자를 제작하였으며 조선전기 『世宗實錄』을 비롯한 『中宗實錄』과 『承政院日記』 등의 기록에서 충주가 언급되고 있어 그 역사는 깊다. 또한 역사기록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적이 있어 도자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지금까지 생활유적을 비롯한 집자리 유적 두 곳, 분묘유적 다섯 곳, 사지유적 두 곳, 가마유적 32개 소를 살펴보았다. 조사된 유적의 수는 조사되지 않은 유적과 비교할 때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자문화의 완전한 복원은 어렵지만 생산 유적과 생활소비유적, 그리고 사후 세계를 중요시했던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분묘유적 등을 통해 다양한 도자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된 유적을 통해 볼 때 자기는 고려시대 도기를 비롯한 토기와 청자가 있고,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와 백자가 있다. 시기적으로 청자는 10~12세기가 주를 이루고, 13·14세기에 해당하는 상감청자도 일부 있다. 그리고 분청사기는 초기에서 말기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백자는 16세기 이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집자리 유적과 가마터유적에서 조사되어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임진왜란 이후의

유물로 추정되는 것이 사지유적과 가마터 대부분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미륵리의 발굴을 통해 충주의 근대백자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백자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충주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려시대 토기는 비교적 큰 기형의 향아리와 청자기형과 유사한 사발등을 볼 수 있다. 청자는 조질의 청자가 많이 있었으나 송선사지에서 출토되는 것과 같은 양질의 청자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분묘유적에서 출토되는 일부 양질의 청자는 질적으로는 다소 떨어져도 비색의 절정으로 평가되는 인종 장릉 출토의 과형병의 모양을 본 뜬 주자 등에서 상당한 수준의 청자를 향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미 고려시대부터 충주지역에는 상당한 도자문화가 전개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그 수요층이 다양하지 않았고 일부 권력층에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자기라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은 분명하다. 특히 고려전반에서 중반까지의 청자가 많은 것은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청자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 아니고 충주지역 어디에서 생산되었으리라 본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청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력집단이 있었을 것이다. 고려초 정종과 광종의 어머니인 神明順成王后와 친척관계에 있는 忠州劉氏 등 비교적 강력한 호족집단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定宗과 光宗 이후에도 충주유씨는 중앙 정계에까지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가 되면 충주지역은 도자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 먼저 분청사기는 전국에서 번조하여 상납하던 품목인데 충주에 자기소와 도기소가 각각 1개소 있었던 기록이 있으며 磁器所인 寶蓮洞은 연화리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분원의 백토를 충주도로 사용하였고 그 흙이 비교적 양질이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조사된 유적에서 보여지는 유물을 보면 연화리는 상감과 인화문을 보이는 15세기 초(1424~1432년)로 편년되며, 집자리나 고분 등에서 출토되는 것은 인화분청과 말기의 귀얄분청이 주류를 이룬다.

백자는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의 백자는 집자리 유적, 일부 분묘유적, 사지유적에서 출토되는 약간의 백자, 그리고 양성면 용대리와 영죽리 가마터 출토 백자 등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경기도 광주 관요와 유사한 양식의 백자가 있다. 따라서 충주지역에서 사용된 자기는 대부분 이 지역에서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집자리 유적에서 출토되는 자기는 토기와 공반되는데 일반 식생활용기는 자기를 사용하였고 비교적 큰 저장용기나 그 외의 것은 토기를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에는 백자와 토기가 각각 용도에 따라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에서 18·19세기에 이르러 자기는 여러 유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 원인은 임진왜란 이후

지방가마의 증가와 수요층이 확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17, 18세기 전국적으로 철화백자가 유행하게 되는데 충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하구암리와 미륵리 3호 가마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후퇴한 느낌이 든다. 또한 도자기가 생활용기로의 기능뿐 아니라 연봉과 같은 건축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충주는 남한강을 이용한 운송이 용이한 지역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漕運이 제도화된 고려초부터 수로가 인접한 지역에 漕倉을 두었다. 고려는 13漕倉이 있었는데 대부분 서해안에 설치되어 연안 항로를 이용했는데 충주의 德興倉과 원주의 興元倉은 유일한 내륙지방의 것으로 남한강의 수계를 이용한 것이다. 충주의 德興倉은 가금면 강안의 麗水浦로 알려져 있다. 특히 덕흥창은 조선시대 可興倉으로 바뀌어 경상도의 貢賦도 담당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또한 漕倉을 정비하여 조운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經國大典」의 9漕倉이 이루어지기 이전 충청도 지역의 조세는 水租가 편리한 8개처에서 담당하였는데 충주에는 淵遷과 仰巖 등 두 곳이 있었다.<sup>38)</sup>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조선시대 중기 이전의 가마는 대부분 남한강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중앙과의 관계나 그 이동경로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 이후 근대에 이르는 가마는 수로보다는 육로 즉 고갯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요층 또한 다양화되고 특별히 중앙과의 공납체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충주지역의 도자문화 중 중요한 것은 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의 발굴을 통해 지금까지 추측만 하였던 근대백자의 면모를 밝힐 수 있었고, 특히 근대 일본과의 관계 규명까지도 시도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미륵리에서 하늘재를 넘어 문경에 이르는 구간에는 근대백자 가마가 산재해 있고, 현재 문경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대가마로의 발전에 교량 역할을 한 곳이 충주지역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충주지역의 도자는 고려, 조선시대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뿐 아니라 근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여 그 의의는 자못 크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충주지역 도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찍이 도토가 생산되어 청자를 생산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상납자기인 분청사

38) 金顯吉, 1995. 『中原文化圈의 位相定立과 發展方向』 (중원문화학술회의 결과보고서), 「중원 지역의 역사적 배경-충북지역을 중심으로」, pp. 139~165.

기를 생산하였으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충주백토가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백자원료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충주지역 도자의 역사를 구명하기 위해 선사시대부터 20세기 전반까지의 집자리, 분묘, 사지, 가마터 등 41개 유적을 중심으로 출토도자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려시대 토기를 비롯하여 청자, 조선시대 토기·분청사기·백자, 근대백자까지 고려에서 20세기에 이르는 긴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었다. 청자는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에서 다량으로 출토되었고, 시기적으로 10~12세기에 해당되는 점이 파악되었다.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에서 보이는 양질의 청자와 비색의 절정을 보이는 인종 장릉 출토 과형병을 모방한 과형주자와 같은 기형에서 당시 충주의 도자수준을 추측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방 호족세력이 수요계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충주의 도자는 더욱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충주에서 제작된 분청사기는 중앙에 상납되었고, 충주토는 분원에서 사용하였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연화리 분청사기 가마터, 많은 수의 백자 가마터 그리고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백자 등을 들 수 있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지방가마가 증가하고 수요층이 확대되는 시기에 그 수와 양이 증가되는 것이 충주지역에서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미륵리를 중심으로한 근대백자 가마의 발굴과 조사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근대백자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미륵리에서 하늘재를 지나 문경으로 이어지는 곳에 산재한 가마터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경의 가마들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미륵리 백자는 근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충주지역 도자는 고려시대 이래로 중부내륙지역의 도자문화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분청사기의 상납과 충주토가 경기도 광주 분원에서 사용되는 등 그 위치가 더욱 확고히 굳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분원이 민영화 된 이후 근대백자를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현대로 이어주는 충주지역 도자문화의 역할은 한국도자사에서 차지하는 의의가 자못 컸음을 알 수 있다.

사진 목차

- 사진 1. 단월동 석곽 9호 출토 청자과형주자(충주박물관 1차)
- 사진 2. 호암동 토광 2호 출토 유물(1차 2지구)
- 사진 3. 승선사지 출토 청자
- 사진 4. 승선사지 출토 분청사기
- 사진 5. 승선사지 출토 백자
- 사진 6. 승선사지 출토 백자 모정
- 사진 7. 영죽리 가마터 수습유물
- 사진 8. 모점리 사기골 1호 · 용포리 가마터 수습유물
- 사진 9. 조천리 사기점터 수습유물
- 사진 10. 구룡리 1호 가마터 수습유물
- 사진 11. 주치리 2호 가마터 수습유물
- 사진 12. 주치리 3호 가마터 수습유물
- 사진 13. 하구암리 사기점골 가마 전경
- 사진 14. 미륵리 1호 가마 전경
- 사진 15. 미륵리 2호 가마 전경

그림 목차

- 그림 1. 하천리식 토기(하천리 F지구 출토유물)
- 그림 2. 갈동 4-2호 주거지 출토유물
- 그림 3. 갈동 2호 석렬유구 출토유물
- 그림 4. ①·② 큰골 석렬유구, ③·④ 음성 오궁리 16호 토기요지 출토유물
- 그림 5. 통점 고분군Ⅱ 3호 석곽묘 출토유물
- 그림 6. ①·② 갈동 회곽묘, ③ 1호 토광묘 출토유물
- 그림 7. 충주지역 가마터 분포도
- 그림 8. 하구암리 사기점골 백자 가마 출토유물
- 그림 9. 연하리 가마골 수습 대접
- 그림 10. 연하리 가마골 수습 접시
- 그림 11. 미륵리 1호 가마 출토유물(축척: 35/100)
- 그림 12. 미륵리 철화백자(축척: 35/100)
- 그림 13. 미륵리 1호 퇴적 유물(축척: 유물 35/100, 문양 50/100)

